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이형택 7년만에 메이저 16강



이형택이 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대회 단식 3회전에서 영국의 앤디 머레이(19위)를 꺾은 뒤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19위 영국 머레이 3-1 제압 여자부선 샤라포바·HING기스 탈락

■ US오픈 테니스

이형택(세계랭킹 43위·삼성증권)이 총상금 184억원이 걸린 US오픈 테니스대회에서 7년만에 단식 16강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2일 뉴욕 플라시 메도 빌리진 킹 내셔널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단식 3회전에서 영국의 20세 신예 앤디 머레이(19위)를 3-1(6-3 6-3 2-6 7-5)으로 꺾고 16강에 올라 4번 시드의 강호 니콜라이 다비덴코(4위·러시아)와 8강 티켓을 놓고 다투게 됐다.

이형택이 메이저대회 단식 16강에 이를을 올린 것은 2000년 US오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동안 그는 2004년 프랑스오픈과 US오픈, 2005년 프랑스오픈, 올해 Wimbledon 등 모두 네 차례 32강에 올랐던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이형택은 첫 세트 시작과 동시에 경기의 주도권을 함께 가져왔다. 게임 스코어 4-3으로 앞서던 이형택이 머레이의 서브 게임을 듀스 끝에 빼앗으며 5-3을 만들고 내쳐 6-3으로 첫 세트를 마무리 지었다. 기세가 오른 이형택은 2세트에서도 서브 게임은 모두 지키고 상대의 범실까지 유도해 승리했다.

하지만 3세트에서 첫 게임을 바로 브레이크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이형택은 결국 게임스코어 1-5까지 끌려가는 무기력한 경기 끝에 세트를 내줬다. 이형택은 4세트에서도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주며 0-1로 끌려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머레이의 서브 게임을 따내며 반격에 성공했다.

이어 이형택은 다시 머레이의 서브 게임 40-30으로 앞선 뒤 상대의 3구 공격이 네트에 걸리면서 게임을 따내 4-2를 만들어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한때 세계 랭킹 8위까지 올랐던 머레이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머레이는 2-5로 뒤진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고 이어진 이형택의 서브 게임까지 따내는 등 5-5를 만들며 이형택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이형택은 이후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 6-5를 만든 뒤 마지막 상대의 서브 게임에서 먼저 한 포인트를 내줬지만 이후 내리 4포인트를 따내며 2시간40분의 혈투를 끝냈다.

한편 여자 단식에서 샤라포바는 단식 3회전에서 30번 시드의 아그니스 라드완스카(폴란드)에 1-2(4-6 6-1 2-6)로 졌다.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힝기스(스위스)도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로루시)에게 1-2로 졌고 7번 시드 나디아 페트로바(러시아) 역시 아그네스 사바이(헝가리)에게 0-2(4-6 4-6)로 패해 탈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4위 다비덴코를 넘어라”

7년만에 메이저대회 단식 16강의 쾌거를 재현해낸 이형택(세계랭킹 43위·삼성증권)을 지도하고 있는 주원홍 삼성증권 감독이 “16강 고비만 넘으면 의외의 성적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원홍 감독은 2일(한국시간) 이형택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3회전에서 세계랭킹 19위 앤디 머레이(영국)를 3-1(6-3 6-3 2-6 7-5)로 꺾은 뒤 “16강에서 맞설 다비덴코는 지금까지 싸웠던 선수들과는 수준이 다른 단계를 넘어선 선수”라며 “실수가 적고 정신력이 강한 선수라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11월 세계랭킹 3위까지 올랐던 니콜라이 다비

덴코(26·러시아)는 현재 랭킹은 4위로 이번 대회에도 4번 시드를 받고 출전했다.

다비덴코는 키가 177cm로 크지 않은 편이지만 주원홍 감독의 말대로 실수가 적고 정신력이 강해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역대 전적에서도 투어 대회에서는 두 번 만나 모두 0-2로 이형택이 졌다. 그러나 개인 통산 최고 랭킹이 둘 다 8위인 기예르모 카나스(14위·아르헨티나)와 머레이를 연파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다비덴코도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주원홍 감독 역시 “이 경기가 가장 큰 코비다. 여기만 넘으면 8강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형택 16강전 최대 고비 이겼을 땐 4강까지도 가능

이형택이 다비덴코마저 누른다면 6번 시드의 제임스 블레이크(미국) 또는 10번 시드 토미 하스(독일) 정도와 대망의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주원홍 감독은 또 4세트 경기 도중 이형택이 코트에 엎드려 허리 마사지를 받은 상황에 대해 “허리가 약간 빠진다고 해서 경기 도중 코트 체인지를 하는 시간을 이용해 처치를 받은 것”이라며 “심한 것이었다면 메디컬 타임을 불렀겠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마사지를 받은 것이라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정상 하루를 쉬 뒤인 4일 열린 다비덴코와 경기를 대비해 체력을 비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전망이다.

■ 2007 세계육상선수권



김건우 10종경기 중 1,500m 1위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서 끝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종경기 마지막 종목인 1,500m 레이스에서 김건우(27·포항시청)가 1위로 달리고 있다. 김건우는 이날 4분16초16으로 골인, 1위를 차지했는데 비록 '종목안의 종목'이었지만 한국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 1위로 골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건우는 10개 종목 종합점수에서 전체 출전자 30명중 23위를 차지했다.

가이, 사상 네번째 3관왕

男 100m·200m 이어 400m 계주도 금

“세 개의 금메달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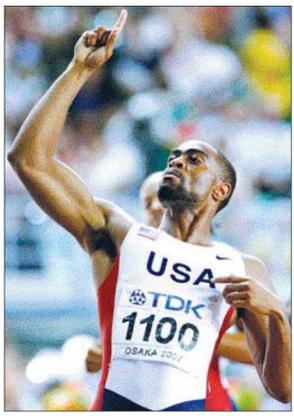
2007 오사카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배출한 최고 스타 타이슨 가이(25·미국·사진)가 사상 네 번째 ‘트레블(3관왕)’을 이뤄내며 세계 육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남자 100m에서 9초85로 세계기록(9초77) 보유자 아사파 파월(자메이카)을 꺾고 우승한 가이는 200m에서도 19초76으로 경쟁자 유세인 볼트(자메이카)를 따돌린 데 이어 1일 400m 계주에서도 미국의 3번 주자로 나서 37초78에 결승선을 끊으면서 자메이카를 제치고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가이는 올해 11회째를 맞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한 대회 3관왕에 오른 네 번째 스타가 됐다.

그 전까지는 ‘20세기 최고의 스피린터’ 칼 루이스(미국)가 1983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와 1987년 로마 대회에서 각각 100m, 멀리뛰기, 400m 계주 금메달을 따내 두 차례 3관왕을 했다.

‘바람의 아들’ 마이클 존슨(미국)은 1995년 예테보리 대회에서 200m, 400m, 1,600m 계주에서 우승했고 ‘원조 인간 탄환’ 모리스 그린(미국)은 1999년 세비아 대회 때 100m, 200m, 400m 계주를 휩쓸었다.

앞선 3관왕이 모두 다섯 번 나왔지만 루



이스가 두 번을 했기에 인물로는 가이가 역대 네 번째 영예를 안았다.

특히 스피린터 종목인 100m, 200m, 400m 계주를 한꺼번에 석권한 것은 그린과 가이 밖에 없다.

가이는 또 100m와 200m 우승 기록 합산에서도 29초61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당시 루이스가 기록한 29초79보다 0.18초 앞서 역사상 가장 빨랐다.

한편 가이는 10월3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7 대구국제육상대회 초청장을 받은 상태다. /최재호기자 lion@

설기현, 풀럼으로 이적...“뛰고 싶었던 팀에 오게돼 기쁘다”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레딩을 떠나 풀럼으로 이적한 설기현(28)이 2일 오전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토트넘과 홈 경기(3-3 무승부)가 열린 풀럼의 홈 구장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를 찾아 경기를 관전했다.

풀럼과 3년 계약을 맺은 설기현은 “뛰고 싶었던 팀에 오게돼 기쁘다”고 이적 소식을 밝히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허리 통증으로 최근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없는 2주 동안 치료를 잘 하면 다음 경기부터는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기현은 레딩의 스티브 코렐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서

“감독과 관계는 좋았다. 1년 동안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떠나게 돼 무척 아쉬웠다. 감독과도 잘 마무리 했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적을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기는 없고 우선 개인적으로 풀럼을 좋아했다. 풀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기현은 지난 1일 풀럼의 수비수 리암 로시니와 맞트레이드 됐으며, 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풀럼의 로리 산체스 감독은 설기현의 영입과 관련, “설기현은 내가 바라는 특성을 가진 선수”라며 “설기현은 체력적으로 강하고 자기는 물론 팀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칭찬했다.

나이지리아, 아르헨 꺾고 4강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4강에 합류했다.

나이지리아는 2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전반 티진 투크만 하루나와 매켈리 크리스찬투스의 연속골로 아르헨티나를 2-0으로 제압했다.

한편 지난 1일 경기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이 피 말리는 승부차기 끝에 ‘아트사키’ 프랑스를 침몰시키고 4강에 선착했고, 아프리카 강호 가나도 페투를 꺾고 준결승전에 합류, 5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스페인과 ‘결승 길목’에서 맞붙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강경남 연장 점전...시즌 첫 승 신고

KPGA 레이크힐스 오픈 최종

2006년 상금왕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이 한국프로골프(KPGA) SBS코리안 투어 레이크힐스오픈에서 짜릿한 연장전 우승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강경남은 2일 제주 서귀포시 레이크힐스 골프장(파72·7천11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 최종합계 3연타

파 213타로 강욱순(41·삼성전자), 오대근(31·DMCC)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버디를 낚아 우승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로써 강경남은 2006년 10월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 이후 11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며 통산 세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6천만원을 받은 강경남은 시즌 상금 1억7천800만원으로 상금 랭킹 2위로 뛰어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